

추천의 말

박영숙 미래포럼 이사장

우리는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국민의 극심한 불신으로 정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각 정당들이 여성들을 당 대표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또는 대변인 등으로 선거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인 13%의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성과를 얻었는가 하면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총리가 임명되는 여성 정치사의 지각변동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의 정치상황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쉽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정치문화구조와 끈질긴 부패의 고리에 얽혀있는 정치관행은 여성의 정계 입문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 후에 정치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데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들의 개선이 없이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를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힘의 게임으로, 또는 개인의 권력, 명예, 그리고 이권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성정치문화를 개혁해내고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는 일은 정치를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연, 학연, 혈연에서 자유롭고 생활밀착형 사고에 보다 익숙한 여성정치인이 담당해야 하는 몫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30%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불거진다. 특히 여성정치세력화의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문제를 주목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이런 때에 여성의원들이 1991년도에 시행되어 2010년에 이르기까지의 20년간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의 역사를 진솔하게 돌아보며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성실하게 자기성찰을 하며 정치의 새롭고 올바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향후과제를 과감하게 제시하고 있는 <여성지방의원백서>가 발간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침서는 더러 있었지만 이미 참여로 축적된 여성의원 활동의 족적과 성과 그리고 대안제시를 담은 출판물은 이것이 처음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이 백서는 두 편의 대담 내용으로 엮여져 있는데 전반부 10년간은 그 당시 우수의원으로 평가 받은 바 있는 여성의원들이, 후반부 10년간은 5개 정당이 추천한 각급 자치회의의 다섯 의원들이 한국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있어 여성의원으로서의 현실정치 참여는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발 딛고 있는 현주소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속되어야 할 여성정치참여와 정치실현 가능성의 전망 등을 가감 없이 토론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의회와 지자체 그리고 언론간의 기브앤테이크의 먹이사슬과 부패의 고리, 지연, 학연, 혈연의 정치역학의 비리, 상가집 밤샘이나 행사후원 등의 스킨쉽으로 평가회는 의정활동성적의 비합리성과 같은 모순들이 날날이 고발되고 있다.

초고를 읽은 필자는 대담에 참여한 의원들의 분명한 시각, 예리한 분석, 오류를 시정하려는 헌신, 살아남기 위해 현실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살신성인의 정신 등에서 크게 감명받았다.

여성정치인들만이 아닌 오늘의 정치현실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의 하나로 이 백서를 추천한다. 각급의원은 물론 행정요원, 유권자들, 그리고 정치권의 개혁을 전망하는 연구자들은 정치권 내부자로서 밀착 취득한 생생한 경험을 일독해야만 한다.

놀라운 것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구조나 관행이 그 후 10년 동안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와 여성 정치력의 질적 향상은 앞으로의 여성 정치 참여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